

#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에 관한 시설장의 인식 연구

## The Directors' Recognition for the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Programs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박목매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혁준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 Park Bok Ma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Human Ecology,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Associate Professor : Hyuk-jun Moo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the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programs in Korea. To assist families in choosing the best child care for their children and to promote excellence in child care settings, an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programs is necessary. The survey subjects were 262 public, private and corporation child care directors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areas. The findings showed that 79.8% of the directors agreed with accreditation systems but they strongly insisted that the necessary time to apply must be well considered with 65.6% of the directors responding that 1~3 years later was a good time to apply and 37.4% choosing the child care environment as the major area that should be evaluated among the 7 indices of the accreditation system. Most directors were in favor of 7 areas as the indices of accreditation systems while more educated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ed directors were more affirmative of the accreditation system.

주제어(Key Words):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 1. 서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육

시설의 환경·인력·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 결과를 예산지원 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부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데 있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5).

보육은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과,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인간의 기본 잠재력은 영유아기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의 질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2005년 12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88.6%)의 확대에 의해 양적 팽창을 이루어 왔지만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평가되면서 보육의 질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미국과 호주 같은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부문의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민간부문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보육의 발전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만이 UN에서 제시한 어린이 인권 선언의 주장인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2003).

무엇보다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보육시설에 있는 많은 영유아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Vandell과 Corasaniti(1990)는 Texas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연구에서 보육경험의 정도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사회·정서·인지발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육경험이 많은 스웨덴의 유아에게 긍정적인 사회발달과 인지발달이 나타난다는 Andersson(1989)의 종단적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결과에 대한 이유를 Vandell과 Corasaniti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의 '질'이 영·유아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질적 보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질적 보육의 정의와 질적 보육의 구성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질적 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평가인증제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이옥, 2002).

평가인증이란 '일정한 수준의 충족에 대한 공적 인정'으로 정의되며 인증과정에는 바람직한 수준의 질을 규정하는 표준을 정하고 이 표준의 획득과 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실시는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 하겠으며 Corsini(1988)도 인증모형을 정부의 관여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운영모형으로 들고 있다

(문지희, 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 관련 일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과 모든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충분한 질적 삶의 수준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Wangman(1992)의 지적은 평가인증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이옥, 2002).

미국의 유아교육협회(NAEYC)가 말하는 성공적인 인증제를 위한 교훈에도 인증제의 목적에 대해 인증의 초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과 운영체계, 기본프로그램을 갖추었느냐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더 좋은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본'에 대한 인증이라는 것이다.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2003) 보육시설 이용자 중 78.2%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찬성하였고 유희정(2002)의 연구에서는 시설장들의 63.4%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찬성하였으며, 찬성의 주요 이유로는 63.0%가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가인증제도가 시범운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평가인증지표 및 평가인증체계 개발 과정에서 외국의 평가인증제도 실행사례나 국내에서 연구된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인증지표 및 평가인증제도 운영안을 작성하여 워크숍, 자문회의, 공청회를 거쳐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장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평가인증지표가 마련되었기에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평가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인증지표를 수정, 보완해 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참여가 전적으로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시설장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평가인증제도에 있어 실제적인 지표가 되는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에 대한 인식은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겠다.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에 대한 시설유형별 인식 연구는, 민간보육시설이 전체보육시설의 88.6%(2005년 12월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유형별 인식이 중요한 관건이며, 시설장의 학력별 인식을 연구 하는 것은 시설장의 보육철학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이 결정되므로 시설장의 질이 곧 보육시설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설장의 질은 학력과 무관할 수 없는 관계로 시설장의 학력별

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시설장의 자격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 보육현장의 상황을 참작하여 수정,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 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4개의 시설유형별로 구분한 후 보육시설의 비율에 기초하여 500개 표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시설유형에 따라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120부, 직장보육시설에 60부, 법인보육시설에 80부, 민간보육시설에 240부를 사용하여 국·공립(58명), 직장(38명), 법인(68명), 민간보육시설(98명)의 시설장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력은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표 1> 연구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N(%)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58(22.1)
	직장보육시설	38(14.5)
	법인(법인, 법인의 포함)보육시설	68(26.0)
	민간보육시설	98(37.4)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23(8.8)
	2년제 대학 졸업	75(28.6)
	4년제 대학 졸업	100(38.2)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64(24.4)

8.8%, 2년제 졸업28.6%, 4년제 졸업 38.2%,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24.4%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보육시설인증지표(안)」과 양옥승(2000)의 「유아교육·평가인증제 개발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안하여 제작한 후 설문지의 항목 구성과 문항별 내용 타당도를 보육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둘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셋째 보육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인식이다.

<표 2> 설문지 문항구성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A. 일반적 사항	보육시설 유형	1	4
	시설장의 학력	2	
	시설장의 전공	3	
	시설장의 경력	4	
B. 평가인증제에 관한 사항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	1	19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	1-1	
	방법 : ① 대상, ② 주제, ③ 결과공개, ④ 인증과정, ⑤ 자체점검 위원회 구성, ⑥ 조력기구 활용, ⑦ 현장관찰방법, ⑧ 현장관찰자 자격, ⑨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 ⑩ 인증결정, ⑪ 인증결과, ⑫ 인증 범위(인증, 인증유보, 불인증), ⑬ 인증 유효기간, ⑭ 인증지표 구성, ⑮ 인증신청 의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장 우선되어야 할 평가영역	19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평가영역 순위	20	
	영역 1 '보육환경'에 관한 의견	21	
	영역 2 '운영관리'에 관한 의견	22	
	영역 3 '보육과정'에 관한 의견	23	
	영역 4 '상호작용'에 관한 의견	24	
	영역 5 '건강과 영양' 관한 의견	25	
C.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영역 6 '안전'에 관한 의견	26	9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의견	27	

<표 3> 도입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찬성한다	찬성하지만 시기상조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계
	99(37.8)	110(42.0)	39(14.9)	14(5.3)	262(100.0)

<표 4> 평가인증을 신청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도입되면 바로 신청	1년쯤 후 신청	2~3년 후 신청	신청안함	계
	35(13.4)	96(36.6)	76(29.0)	55(21.0)	262(100.0)

<표 5>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평가영역

단위 : 명(%)

구분	1. 보육 환경	2. 운영 관리	3. 보육 과정	4. 상호 작용	5. 건강과 영양	6. 안전	7.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계
	98(37.4)	17(6.5)	61(23.3)	15(5.7)	33(12.6)	30(11.5)	8(3.1)	262(100.0)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평균, 총점),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에 의하여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1) 도입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99명(37.8%), ‘찬성하지만 시기상조이다’는 응답이 110명(42.0%), ‘반대한다’는 응답이 39명(14.9%), ‘잘 모르겠다’ 응답이 14명(5.3%)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찬성하지만 시기상조이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신청의향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평가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쯤 신청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되면 바로 신청하겠다’

13.4%, ‘1년 쯤 후에 신청하겠다’ 36.6%, ‘2~3년 후에 신청하겠다’ 29.0%, ‘신청하지 않겠다’ 21.0%로 나타났으며, 1~3년쯤 후에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인식

1) 가장 우선 평가 되어야 하는 영역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보육시설의 실정에 비추어보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의 평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우선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영역 1-보육환경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역 3-보육과정(23.3%), 영역 5-건강과 영양(12.6%), 영역 6-안전(11.5%), 영역 2-운영관리(6.5%), 영역 4-상호작용(5.7%), 영역 7-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3.1%)의 순서로 나타났다.

2)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평가영역 순위

보육시설 평가지표의 7개 영역 중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순서대로 표시하게 하고, 각 순위에 가중치를 두어 각 영역별 총점(평균)을 환산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영역의 순위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영역별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으로 영역 1-보육환경(1472점)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영

<표 6>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평가영역 순위  
단위 : 명(%)

영역	영역별 총점(평균)	순위
1. 보육환경	1472(5.62)	1
2. 운영관리	901(3.44)	6
3. 보육과정	1334(5.09)	2
4. 상호작용	970(3.70)	5
5. 건강과 영양	1205(4.60)	3
6. 안전	1107(4.23)	4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344(1.31)	7

역 3-보육과정(1334점), 3순위로는 영역 5-건강과 영양(1205점), 4순위로는 영역 6-안전(1107점), 5순위로는 영역 4-상호작용(970점), 6순위로는 영역 2-운영관리(901점), 7순위로는 영역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344점)으로 나타났다.

3.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인식

1) 영역 1(보육환경)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영역 1. 보육환경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 보육시설 69.1%, 국·공립 보육시설 56.9%, 민간보육시설 44.9%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보육시설이 다른 보육시설유형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대학원졸의 경우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60.0%), 2년제 졸(54.7%), 보육교사교육원 출신(17.4%)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에서는 그와 반대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졸(16.0%), 4년제 졸(6.0%), 대학원졸(3.1%) 순서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영역 2(운영관리)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영역 2. 운영관리를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보육시설 63.2%, 국·공립보육시설 43.1%, 민간보육시설 30.6%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24.5%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 8.6%, 법인보육시설 4.4%, 직장보육시설 0% 순으로 나타나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민간보육시설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 영역 1(보육환경)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33(56.9)	22(37.9)	3(5.2)	58(100.0)
	직장	28(73.7)	9(23.7)	1(2.6)	38(100.0)
	법인	47(69.1)	19(27.9)	2(2.9)	68(100.0)
	민간	44(44.9)	33(33.7)	21(21.4)	98(100.0)
	계	152(58.0)	83(31.7)	27(10.3)	262(100.0)
$X^2 = 26.88 \text{ df} = 6 \text{ p} < .00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4(17.4)	12(52.2)	7(30.4)	23(100.0)
	2년제 졸	41(54.7)	22(29.3)	12(16.0)	75(100.0)
	4년제 졸	60(60.0)	34(34.0)	6(6.0)	100(100.0)
	대학원 졸	47(73.4)	15(23.4)	2(3.1)	64(100.0)
	계	152(58.0)	83(31.7)	27(10.3)	262(100.0)
$X^2 = 30.51 \text{ df} = 6 \text{ p} < .001$					

<표 8> 영역 2(운영관리)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25(43.1)	28(48.3)	5(8.6)	58(100.0)
	직장	26(68.4)	12(31.6)	0(0.0)	38(100.0)
	법인	43(63.2)	22(32.4)	3(4.4)	68(100.0)
	민간	30(30.6)	44(44.9)	24(24.5)	98(100.0)
	계	124(47.3)	106(40.5)	32(12.2)	262(100.0)
$X^2 = 37.15$ df = 6 p < .00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7(30.4)	8(34.8)	8(34.8)	23(100.0)
	2년제 졸	26(34.7)	34(45.3)	15(20.0)	75(100.0)
	4년제 졸	54(54.0)	40(40.0)	6(6.0)	100(100.0)
	대학원 졸	37(57.8)	24(37.5)	3(4.7)	64(100.0)
	계	124(47.3)	106(40.5)	32(12.2)	262(100.0)
$X^2 = 26.57$ df = 6 p < .001					

<표 9> 영역 3(보육과정)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37(63.8)	18(31.0)	3(5.2)	58(100.0)
	직장	31(81.6)	7(18.4)	0(0.0)	38(100.0)
	법인	48(70.6)	17(25.0)	3(4.4)	68(100.0)
	민간	43(43.9)	36(36.7)	19(19.4)	98(100.0)
	계	159(60.7)	78(29.8)	25(9.5)	262(100.0)
$X^2 = 28.90$ df = 6 p < .00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5(21.7)	11(47.8)	7(30.4)	23(100.0)
	2년제 졸	41(54.7)	22(29.3)	12(16.0)	75(100.0)
	4년제 졸	65(65.0)	30(30.0)	5(5.0)	100(100.0)
	대학원 졸	48(75.0)	15(23.4)	1(1.6)	64(100.0)
	계	159(60.7)	78(29.8)	25(9.5)	262(100.0)
$X^2 = 32.28$ df = 6 p < .001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대학원졸의 경우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54.0%), 2년제 졸(34.7%), 보육교사교육원 출신(30.4%)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의 비율은 그와 반대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졸(20.0%), 4년제 졸(6.0%), 대학원졸(4.7%)순서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영역 3(보육과정)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3. 보육과정을 평가인증 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보육시설 70.6%, 국·공립보육시설 63.8%, 민간보육시설 43.9%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19.4%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 5.2%, 법인보육시설 4.4%, 직장 보육시설 0% 순으로 나타나 직장, 법인,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의 순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 영역 4(상호작용)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30(51.7)	22(37.9)	6(10.3)	58(100.0)
	직장	26(68.4)	12(31.6)	0(0.0)	38(100.0)
	법인	34(50.0)	23(33.8)	11(16.2)	68(100.0)
	민간	39(39.8)	40(40.8)	19(19.4)	98(100.0)
	계	129(49.2)	97(37.0)	36(13.7)	262(100.0)
$X^2 = 13.86$ df = 6 p = .03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6(26.1)	10(43.5)	7(30.4)	23(100.0)
	2년제 졸	31(41.3)	29(38.7)	15(20.0)	75(100.0)
	4년제 졸	55(55.0)	35(35.0)	10(10.0)	100(100.0)
	대학원 졸	37(57.8)	23(35.9)	4(6.3)	64(100.0)
	계	129(49.2)	97(37.0)	36(13.7)	262(100.0)
$X^2 = 15.97$ df = 6 p = .014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대학원졸의 경우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65.0%), 2년제 졸(54.7%), 보육교사교육원 출신(21.7%)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의 비율은 그와 반대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졸(16.0%), 4년제 졸(5.0%), 대학원졸(1.6%) 순서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4) 영역 4(상호작용)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 가운데 4. 상호작용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보육시설 51.7%, 법인보육시설 50.0%, 민간보육시설 39.8%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19.4%로 가장 높았고, 법인보육시설 16.2%, 국·공립보육시설 10.3%, 직장보육시설 0% 순으로 나타나 직장,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의 순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대학원졸의 경우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55.0%), 2년제 졸(41.3%), 보육교사교육원 출신(26.1%)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의 비율은 그와 반대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졸(20.0%), 4년제

졸(10.0%), 대학원졸(6.3%)의 순서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영역 5(건강과 영양)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5. 건강과 영양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보육시설 80.9%, 국·공립보육시설 70.7%, 민간보육시설 46.9%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22.4%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보육시설 6.9%, 법인보육시설 2.9%, 직장보육시설 2.6% 순으로 나타나 직장, 법인,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의 순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민간,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의 순서로 높았다.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졸업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 71.9%, 2년제 졸업 58.7%, 보육교사교육원 39.1%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0.4%로 가장 높았고, 2년제 졸업 16.0%, 대학원졸업 6.3%, 4년제 졸업 6.0% 순으로 나타나 4년제 졸업, 대학원졸업, 2년제 졸업,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의 순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1> 영역 5(건강과 영양)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41(70.7)	13(22.4)	4(6.9)	58(100.0)
	직장	32(84.2)	5(13.2)	1(2.6)	38(100.0)
	법인	55(80.9)	11(16.2)	2(2.9)	68(100.0)
	민간	46(46.9)	30(30.6)	22(22.4)	98(100.0)
	계	174(66.4)	59(22.5)	29(11.1)	262(100.0)
$X^2 = 34.14$ df = 6 p < .00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9(39.1)	7(30.4)	7(30.4)	23(100.0)
	2년제 졸	44(58.7)	19(25.3)	12(16.0)	75(100.0)
	4년제 졸	75(75.0)	19(19.0)	6(6.0)	100(100.0)
	대학원 졸	46(71.9)	14(21.9)	4(6.3)	64(100.0)
	계	174(66.4)	59(22.5)	29(11.1)	262(100.0)
$X^2 = 19.22$ df = 6 p = .004					

<표 12> 영역 6(안전)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38(65.5)	16(27.6)	4(6.9)	58(100.0)
	직장	29(76.3)	8(21.1)	1(2.6)	38(100.0)
	법인	53(77.9)	12(17.6)	3(4.4)	68(100.0)
	민간	48(49.0)	32(32.7)	18(18.4)	98(100.0)
	계	168(64.1)	68(26.0)	26(9.9)	262(100.0)
$X^2 = 22.04$ df = 6 p = .001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8(34.8)	8(34.8)	7(30.4)	23(100.0)
	2년제 졸	44(58.7)	22(29.3)	9(12.0)	75(100.0)
	4년제 졸	69(69.0)	23(23.0)	8(8.0)	100(100.0)
	대학원 졸	47(73.4)	15(23.4)	2(3.1)	64(100.0)
	계	168(64.1)	68(26.0)	26(9.9)	262(100.0)
$X^2 = 19.62$ df = 6 p = .003					

6) 영역 6(안전)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6. 안전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과 시설장의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유형에 따라 ‘찬성한다’의 비율을 살펴보면, 법인보육시설이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보육시설 76.3%, 국·공립보육시설 65.5%, 민간보육시설 49.0% 순서로 나타나 법인, 직장,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높

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18.4%, 국·공립보육시설 6.9%, 법인보육시설 4.4%, 직장보육시설 2.6%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한다’의 비율이 대학원졸의 경우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69.0%), 2년제 졸(58.7%), 보육교사교육원 출신(34.8%)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의 비율은 그와 반대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제 졸(12.0%), 4년제 졸(8.0%), 대학원졸(3.1%)의 순서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3〉 영역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반응빈도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보육시설유형	국·공립	24(41.4)	26(44.8)	8(13.8)	58(100.0)
	직장	18(47.4)	19(50.0)	1(2.6)	38(100.0)
	법인	40(58.8)	21(30.9)	7(10.3)	68(100.0)
	민간	34(34.7)	47(48.0)	17(17.3)	98(100.0)
	계	116(44.3)	113(43.1)	33(12.6)	262(100.0)
$X^2 = 13.93$ df = 6 p = .030					
시설장의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9(39.1)	8(34.8)	6(26.1)	23(100.0)
	2년제 졸	27(36.0)	35(46.7)	13(17.3)	75(100.0)
	4년제 졸	44(44.0)	45(45.0)	11(11.0)	100(100.0)
	대학원 졸	36(56.3)	25(39.1)	3(4.7)	64(100.0)
	계	116(44.3)	113(43.1)	33(12.6)	262(100.0)
$X^2 = 12.33$ df = 6 p = .055					

7) 영역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인식

‘평가인증지표의 7개 영역 가운데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 보육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찬성한다’의 응답비율이 법인보육시설에서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보육시설 47.4%, 국·공립보육시설 41.4%, 민간보육시설 34.7%의 순서로 나타나 영역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해서 법인, 직장,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의 순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민간보육시설이 17.3%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보육시설 13.8%, 법인 10.3%, 직장 2.6%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시기상조 이기는 하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희정(2002), 문지희(2003), 이경채(200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 보다 ‘찬성하지만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이 제도에 대한 흥

보와 올바른 평가관 부족, 업무과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인증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평가인증제도 시행에 있어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신청할 의향에 대한 인식에는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79.0%로 높게 나타났으나 ‘신청하지 않겠다’ 의견도 21.0%나 나타났다. 이는 문지희(2003), 이경채(2003), 여성부 보육실태조사(200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써 도입즉시 신청하기 보다는 추이를 살펴 보면서 신청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부의 보육실태조사(2005)에서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33.0%, 본 연구에서 21.0%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평가인증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심리적인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피 평가자 모두의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장 우선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은 보육환경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보육과정, (3)건강과 영양, (4)안전, (5)운영관리, (6)상호작용,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의 순위로는 (1)보육환경, (2)보육과정, (3)건강과 영양, (4)안전, (5)상호작용, (6)운영관리, (7)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순으로 나타나 상호작용과 운영관리에 대한 순위가 바뀐 것 외에는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영역’과 ‘보육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론적인 면에서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나누어 볼 때 '상호작용' 영역은 인적 환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의 평가가 주로 명시된 '보육환경' 영역은 양쪽 모두에서 1순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호작용' 영역은 시설장들의 중요한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의 부족과 평가지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상황에서는 개별 영유아들에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상호작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현실성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7개 영역을 평가인증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시설유형 및 시설장의 학력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시설유형에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7개 영역 모두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사업은 비영리 비과세의 공보육 사업이고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평가인증제도 자체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이 낮거나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시설장들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인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거나 보육철학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교사는 시설장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이고 보육시설은 시설장의 보육철학이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시설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교사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보육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 보육실태조사(2005)에서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과의 거리이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장의 자질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시설장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보육의 질적 수준은 시설장의 교육수준이나 전문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장의 전문화된 교육과 자질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과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국·공립, 직장, 법인, 민간의 21인 이상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21인 이하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와 연구대상 지역을 더욱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시설규모, 재정규모, 보육아동 수,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변인을 구체화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관련된 시설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외에 심층적인 인터뷰나 비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홍보,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다양하고 다각적인 평가인증지표의 개발, 평가인증지표항목들의 현실성, 평가단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이 제고 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때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육이념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지희(2003).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모형개발.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21인 이상 보육시설).
- 양옥승(2000).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증제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1(4), 177-196.
- 여성부(2005). 보육실태조사 자료집.
-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7(1), 1-31.
- 이경채(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연구
- 이 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質).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Andersson, B. E. (1989). Effects of public day-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 857-866.

- Corsini, D. A., Wisensael S., & Caruso G. (1988). "Family Daycare: System Issues and Regulatory Models". *Young Children*, 46(6).
- NAEYC (1998). *Accreditation. Criteria & Procedures*. Washington, D.C. : NAEYC.
-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555-572.
- Wangman, J. (1992). National Accreditation of Early Childhood Services : Confronting the Issues. *Independent Education*, 22(1).
- 
- (2006년 1월 25일 접수, 2006년 3월 14일 채택)